

2025.05.14.(수) 증권사리포트

◆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클래시스

미용의료기기 매출은 고성장 중이다

[출처] 상상인증권 하태기 애널리스트

1분기 영업실적 기대수준 이상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3.1% 증가한 771억원, 영업이익이 46.3% 증가한 388억원을 기록했다. 당사 리서치 전망치와 시장 가이던스를 소폭 초과했다. 1분기의 우호적인 환율 환경하에서 기존의 장비와 소모품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루다 매출이 가세하여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수출이 56% 증가한 525억원이다. 이러한 고성장은 동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5년 1분기 장비/소모품 매출 예상보다 고성장 중

첫째, 미용의료 장비 매출 59.6% 증가한 355억원을 기록했다. 장비 수출에서 전년 동기 대비 68.4% 증가한 263억원을 기록했다. 울트라포머와 신규 제품 볼뉴머가 성장하는 가운데, 이루다 제품이 가세한 영향이다. 울트라포머가 브라질 중심의 남미, 태국, 일본, 대만 중심의 아시아에서 매출이 고성장 하고 있다. 볼뉴머 장비가 2024년에 미국, 태국, 브라질, 대만/호주에 출시되었고, 2025년 하반기에 유럽에 출시할 계획이다. 국내 매출도 38.7% 증가한 92억원을 기록했다. 2025년 전체 미용의료기기 장비 매출은 39.8% 성장한 1,737억원으로 전망된다.

둘째, 소모품 매출 증가 폭이 크다. 소모품(카트리지 등) 매출은 국내 매출 증가 폭도 크고, 수출 성장 속도도 빠르다. 2025년 1분기 전체 소모품 매출은 53.1% 증가한 405억원이다. 2025년 연간 소모품 매출은 43.9% 증가한 1,625억원으로 전망된다. 셋째, 이루다(구) 매출에서 사업 시너지가 나고 있다. 이루다 부문의 2024년 4분기 매출이 117억원이었고, 2025년 1분기에도 비슷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부터 이루다 매출은 장비 매출과 소모품 매출로 집계되었다. 합병 시너지가 발생하고,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Financial Data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3	180	90	74	1,146	32.9	25.6	8.6	28.9	0.5
2024	243	122	98	1,494	31.9	23.6	6.9	26.5	0.5
2025E	346	170	136	2,077	31.0	22.7	7.4	26.5	0.4
2026E	419	208	161	2,462	26.2	18.2	5.9	25.0	0.4
2027E	510	254	197	3,013	21.4	14.3	4.7	24.4	0.4

자료: K-IFRS연결기준, 상상인증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재고는 바닥이나 전방산업은?

[출처] IBK투자증권 이현욱 애널리스트

25년 1분기, 어느새 가동률이 40%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1Q25 매출액 1,580억원(QoQ -15.2%), 영업이익 -460억원(QoQ 적자지속), OPM -29.1%(QoQ -7.6%p)로 컨센서스(매출액 1,670억원, 영업이익 -310억원)를 하회했다. 24년 하반기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객사의 수요 감소 및 동사의 제품 재고 소진에 따라 가동률이 1H24 80% 수

준에서 2H24 50%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1Q25에는 40%대 가동률을 기록하며 동박 출하량은 5,200톤 (QoQ +2.7%, YoY -48.2%)을 기록했다. 수익성은 동박 출하량 감소 및 말레이시아와 익산 공장 평균 가동률이 40%를 기록하며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25년 2분기, 본격적인 가동률 상승 사이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2Q25 매출액 2,110억원(QoQ +33.8%), 영업이익 -220억원(QoQ 적자지속), OPM -10.5%(QoQ +18.6%p)로 전망한다. 3Q24부터 시작된 과잉 재고 소진을 통해 1Q25 동박 제품 재고는 1.2개월 수준으로 추정되며 적정 재고 수준이 1.5개월 미만인 점을 고려시 2Q25부터 의미 있는 가동률 회복이 전망된다. 2Q25의 가동률은 56%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정비 부담 감소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분기 기준 흑자전환은 4Q25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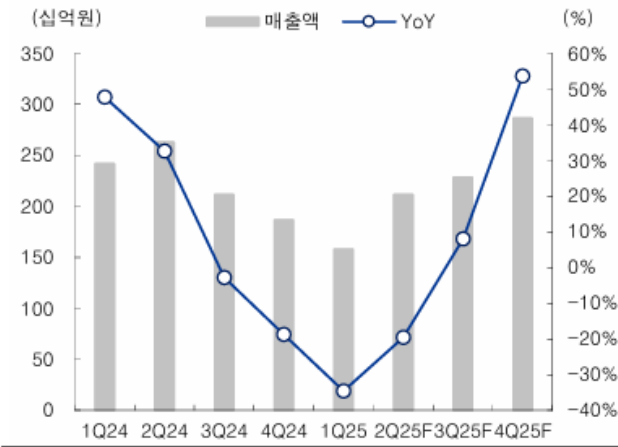
투자의견 Trading Buy, 목표주가 24,000원으로 하향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에 따라 투자의견은 Trading Buy, 목표주가는 24,000원으로 하향 조정 한다. 과잉 제품 재고 소진으로 2Q25부터 본격적인 가동률 상승이 전망되나, 문제는 전방 수요 확인이다. 주요 고객인 알루미늄과 SDI의 연내 판매량 증가가 불확실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 여파와 유럽 내 중국 배터리 기업 점유율 상승에 따른 업황 악화가 전망되어 동사의 가동률은 40%대에서 전방 수요에 따라 속도 조절이 있을 전망이다.

(단위:십억원,배)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809	902	884	1,231	1,377
영업이익	12	-64	-71	31	65
세전이익	-37	-16	-63	37	60
지배주주순이익	-33	6	-108	16	31
EPS(원)	-706	137	-2,099	306	588
증가율(%)	-174.3	-119.4	-1,636.8	-114.6	92.2
영업이익률(%)	1.5	-7.1	-8.0	2.5	4.7
순이익률(%)	-5.6	3.2	-6.9	2.4	3.5
ROE(%)	-2.2	0.5	-8.4	1.3	2.4
PER	-59.6	172.8	-10.5	71.9	37.4
PBR	1.4	0.8	0.9	0.9	0.9
EV/EBITDA	23.4	60.2	-183.2	16.9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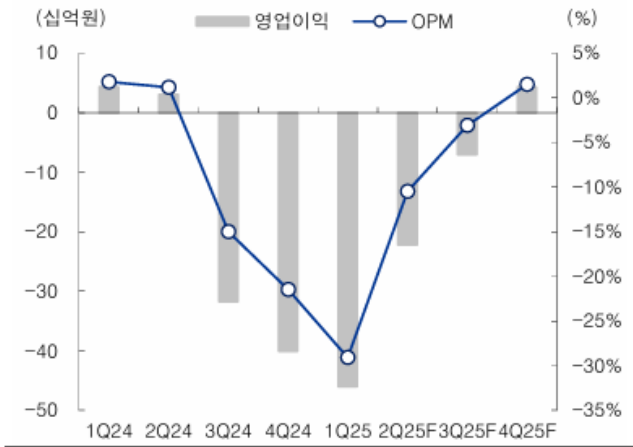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매출액 및 YoY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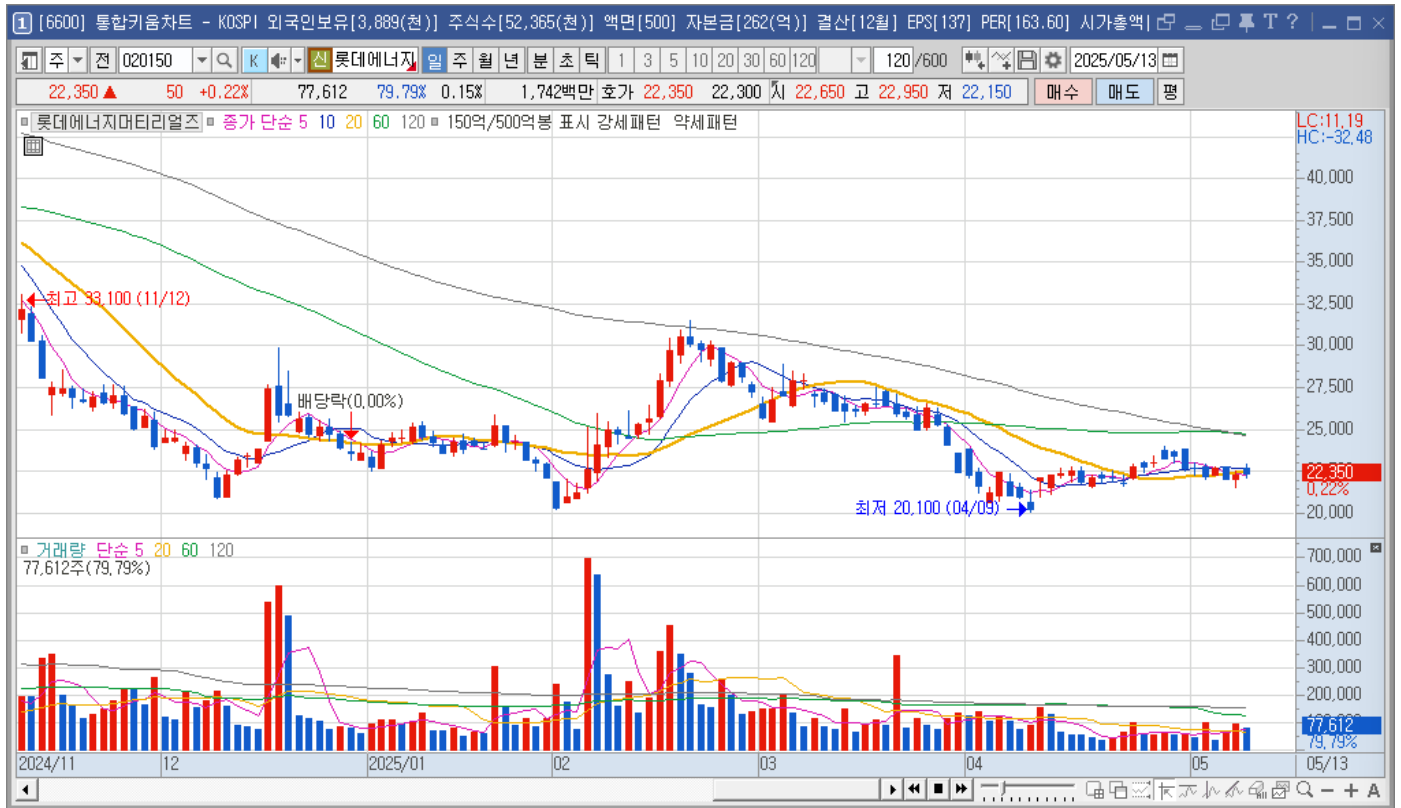
자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IBK투자증권

그림 2.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IBK투자증권





TKG휴켄스

글로벌 MDI 증설 국면에 진입하다

[출처] 유안타증권 황규원 애널리스트

2025년 예상 영업이익 609억원, △25% 감익

우레탄 체인에서 중간 원료를 생산해 국내 독점으로 공급하는 안정적인 기업이지만, 2025년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2025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1.1조원, 영업이익 609억원(영업이익률 5.8%), 지배주주 순이익 564억원' 등이다. 영업이익은 2023년 1,212억원, 2024년 808억원 대비 2개년 연속 감소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다. 2024년 주력제품 MNB(최종 제품은 단열재, 보냉재에 사용되는 액체제품) 증설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했지만, 전방산업이 우레탄 시장 악화(건자재, 단열재 등)로 오히려 △24% 감익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레탄 MDI 글로벌 공급 확장 국면 진입

MNB(용도 : 우레탄 원료인 MDI의 전단계 액체원료)가 주력제품이다. 2024년 30만톤(증설후 72만톤)을 확장했다. 그런데, 전방 우레탄 산업에서 증설압박이 높아지면서 실적 기대감이 반감되고 있다. MNB가 사용되는 MDI 산업의 경우, 2024 ~ 2027년 글로벌 증설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순증설 규모는 2024년 60만톤(금호미쓰이(주) 20만톤), 2025년 30만톤, 2026년 120만톤(Basf(주) 30만톤 Covestro(주) 50만톤, Xingjiang Juli(주) 40만톤), 2027년 50만톤(Wanhua(주) 40만톤) 등이다. 2027년 글로벌 총개파 1,264만톤으로, 글로벌 수요 980만톤(연간 증분 30만톤)을 크게 웃돈다.

2025년 적정주가 2.5만원으로 하향

2025년 업황 및 실적 둔화를 반영해, 적정주가를 2.5만원(기존 3.1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실적 부진에도 (+) 잉여현금 창출 능력과 주당 1,000원 연말 배당은 유효할 것으로 보여, Buy의견을 유지한다. 참고로, MNB 대형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2025년 Capex 규모는 35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반면, 순이자를 반영한 현금창출능력(= 영업이익+감가상각비-법인세+순이자수익)은 1,200억원으로, 투자비를 제외하고 850억원의 잉여 현금이 쌓이게 된다.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억원, %)

	1Q25P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2,693	-10.5	-13.7	3,226	-16.5
영업이익	126	-60.0	53.3	143	-11.9
세전계속사업이익	184	-52.1	70.5		
지배순이익	144	-52.5	83.6	132	9.3
영업이익률 (%)	4.7	-5.8 %pt	+2.1 %pt	4.4	+0.3 %pt
지배순이익률 (%)	5.4	-4.7 %pt	+2.9 %pt	4.1	+1.3 %pt

자료: 유안타증권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3A	2024A	2025F	2026F
매출액	10,527	11,882	10,547	10,020
영업이익	1,212	808	609	759
지배순이익	1,348	777	564	659
PER	6.5	10.2	11.6	10.0
PBR	1.0	0.9	0.7	0.7
EV/EBITDA	4.2	5.4	4.4	3.7
ROE	16.0	9.1	6.5	7.4

자료: 유안타증권





이마트

1Q25 Review : 본업 호조는 지속

[출처] 상상이증권 김혜미 애널리스트

1Q25 매출액 yoy +0.2%, 영업이익 yoy 238.2%

이마트의 1Q25 연결 실적은 매출액 7조2,189억원, 영업이익 1,593억원으로 당사 추정치 및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이익을 시현하였다. 별도 영업이익은 크게 성장했으나, 또 다른 기대 포인트였던 온라인 자회사들이 부진하며 이번 실적 개선은 본업 수익성 향상이 견인한 셈이다.

1) 이마트 별도 실적은 (순)매출 yoy +11%, 영업이익 yoy +43% 성장하였다. 3Q24부터의 에브리데이 합병 영향으로 별도 매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해당 효과를 제외한 동일 기준 성장률은 yoy +1.4%이다. 점포 형태별로, 트레이더스와 전문점이 외형 확대를 이끌었으며, 기존점 신장률의 경우, 할인점 yoy -0.6%, 트레이더스 yoy +1.9%를 기록하였다. 영업이익은 통합 매입에 따른 원가율 개선과 선제적 효율화에 따른 판관비 절감 효과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연결 자회사의 경우, 2) SSG와 G마켓의 매출이 각각 yoy -14%, -21%로 역성장한 한편, 영업적자도 합산 기준 -30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8억원 확대되었다. 1Q 역기저가 가장 높았던데다 프로모션 비용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3) SCK컴퍼니는 매출 yoy +4%, 영업이익 yoy +7% 증가하였다. 점포 수 qoq +8개 증가했으며, 고환율에도 공급처 다변화 및 비커피 음료 원가 개선 등을 통해 수익성 향상되었다. 이밖에 4) 기타 자회사들의 경우 이마트24, 신세계프라퍼티, PKR,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등이 대체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였다.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100,000 -> 120,000원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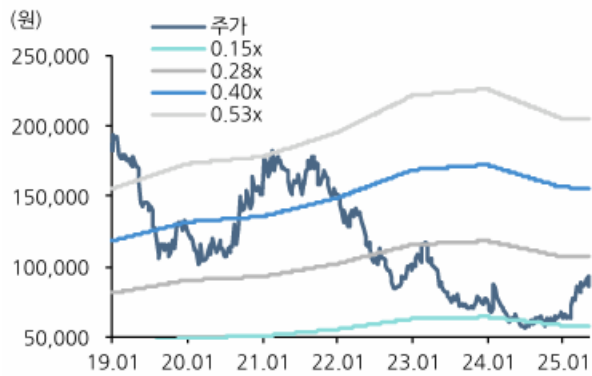
통합 매입으로 인한 원가 개선,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효율화, 차별화된 대형 마케팅의 집객 활성화 등이 우연한 업계 재편 효과와 맞물리며 오프라인 유통 내 동사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다만, 최근 가파르게 올랐던 주가는 기대보다 빠르지 못한 경쟁사로부터의 반사 수혜와 온라인 자회사 부진으로 전일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유지되는 가운데 온라인 부문 역시 시간을 두고 구조 전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는 만큼, 기존 투자포인트에는 변함이 없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기존 추정치 대비 상향된 실적 전망치를 근거로 목표주가 상향 제시한다.

Financial Data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3	29,472	-47	-89	-3,196	n/a	7.3	0.2	-0.8	2.6
2024	29,021	47	-590	-21,166	n/a	7.2	0.2	-5.4	3.2
2025E	29,543	449	110	4,091	21.2	6.2	0.2	1.1	2.3
2026E	30,142	530	191	7,127	12.2	6.0	0.2	1.8	2.3
2027E	30,702	615	267	9,972	8.7	5.8	0.2	2.5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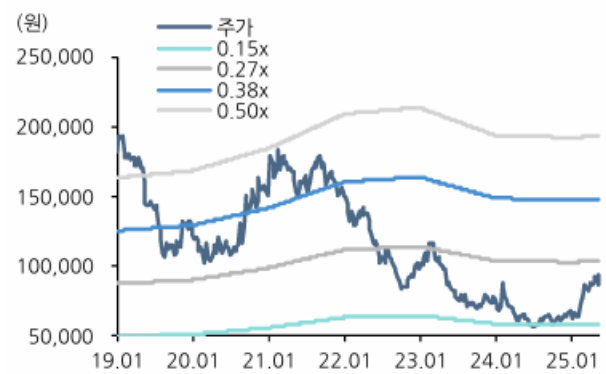
자료 : K-IFRS연결기준,상상인증권

그림 1. PBR Band Chart (12M Trai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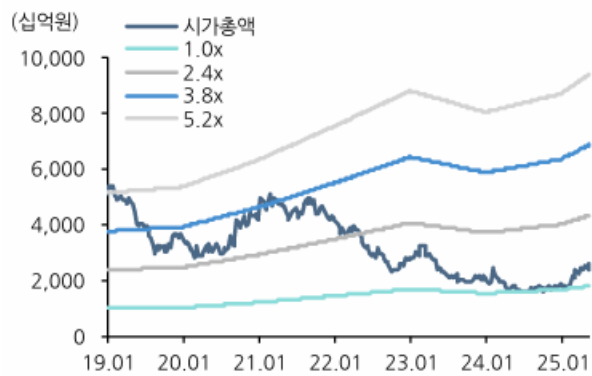
자료: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PBR Band Chart (12M fw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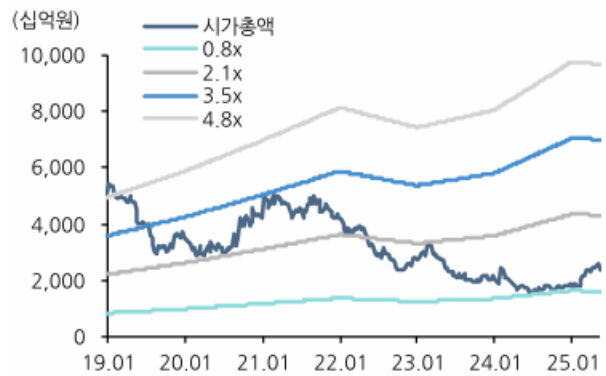
자료: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EV/EBITDA Band Chart (12M Trailing)



자료: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EV/EBITDA Band Chart (12M fwd)



자료: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엔컴퍼니

AGM 배터리 증설 중

[출처] 하나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

1Q25 Review: ES 사업부만의 영업이익률 8.9% 기록

한국엔컴퍼니의 1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2%/1% (YoY) 증가한 3,887억원/1,269억원, 영업이익률은 32.6%(-3.4%p (YoY))를 기록했다. 차량용/산업용 1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ES 사업부만의 매출액/영업이익은 19%/50% (YoY) 증가한 2,702억원/241억원(영업이익률 8.9%, +1.8%p (YoY))을 기록했

다. 거래선 다변화와 함께 상대적 고가인 AGM 배터리의 증가, 그리고 환율 상승에 힘입어 외형이 크게 성장했다(물량 +15%~+20%). 외형 성장과 더불어 원재료 가격 하락이 더해지면서 영업이익률은 1.8%p (YoY) 상승했다. 지주 부문의 실적은 감소했는데, 주력 지분법 대상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지분율 31.15%)의 당기순이익이 재료비/선임비 상승과 열관리 부문의 부진(=한온시스템 연결 시작) 등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결 세전이익/지배주주순이익은 각각 1%/+1% (YoY) 변동한 1,251억원/1,154억원을 기록했다.

AGM 수요 증가에 맞춰 증설을 진행 중

AGM 배터리는 자동차의 Stop&Go 기능에 많이 사용되는 고성능 배터리인데, Stop&Go 기능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HEV)의 판매가 늘면서 글로벌 시장 규모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2024년 기준 AGM 배터리의 시장규모는 약 1.0억개로 전체 1차 배터리 시장에서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5년/2026년 각각 1.11억개/1.22억개(비중 18%/19%)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30년 1.84억개). 현재 시장 내 공급 대비 수요가 초과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엔컴퍼니는 2024년 약 180만개(생산 비중 12%)의 AGM 라인을 운영 중인데(2023년은 116만개/9%), 시장 수요 증가를 따라잡기 위해 2025년 250만대/15%까지 증설하고, 2026년에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MF 배터리 대비 AGM 배터리의 판가가 높기 때문에 AGM 배터리의 비중 상승은 연결 ASP 및 수익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기대 배당수익률은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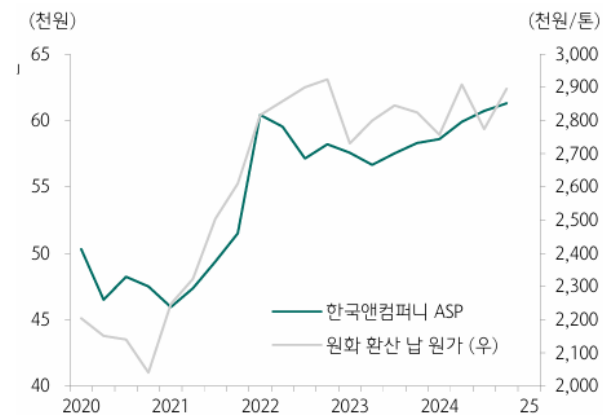
한국엔컴퍼니의 적정 시가총액은 2.1조원 수준으로 평가하는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한 지분가치 1.15조원(지분율 31.15%, 할인율 40%), 로열티/용역 가치 0.4조원, 사업부문 가치 0.7조원, 순현금 -0.1조원 등을 합산한 것이다. 현재 시가총액은 1.49조원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전체 기업가치의 70%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한 지분법/로열티인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한온시스템을 인수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영향이 크다. 한온시스템의 실적 및 재무구조를 감안할 때 관련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AGM 배터리의 증설을 통한 사업부문의 성장과 주주환원 제고는 주가를 지지하는 요인이다. 한국엔컴퍼니는 2024년 중간배당 210원을 포함해 연간 1,000원의 주당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조정 EBITDA의 50% 이상을 배당한다는 정책을 시행 중인 바 ES 사업부의 성장은 배당금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현 주가를 기준으로 기대 배당수익률은 6.4%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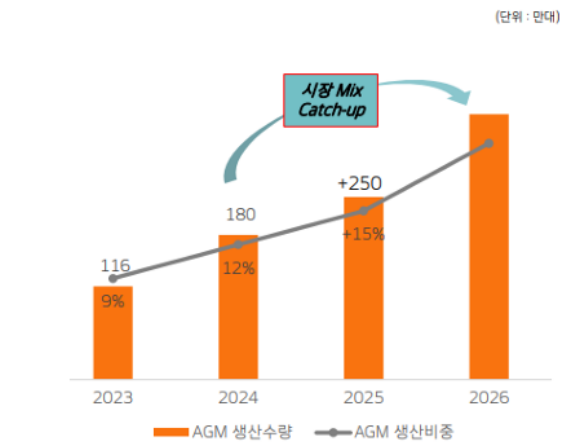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963	1,096	1,090	1,391
영업이익	228	245	257	418
세전이익	228	247	206	391
순이익	197	166	187	351
EPS	2,087	1,749	1,972	3,694
증감율	43.1	(16.2)	12.8	87.3
PER	7.5	8.0	7.9	4.6
PBR	0.4	0.3	0.4	0.4
EV/EBITDA	5.1	4.9	5.4	3.8
ROE	5.3	4.3	4.7	7.9
BPS	39,349	40,622	42,345	46,939
DPS	600	650	700	1,000

도표 4. 한국엔컴퍼니의 배터리 ASP와 납가격 추이 비교



자료: 한국엔컴퍼니, 하나증권

도표 5. 한국엔컴퍼니의 AGM 배터리 증설 계획



자료: 한국엔컴퍼니, 하나증권

수 감소와 부진한 날씨 여파에 따라 기존점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며, 3) 홈쇼핑은 소비경기 악화 및 의류 매출 둔화에 따른 Product Mix 효과가 나타나면서 외형과 수익성 모두 부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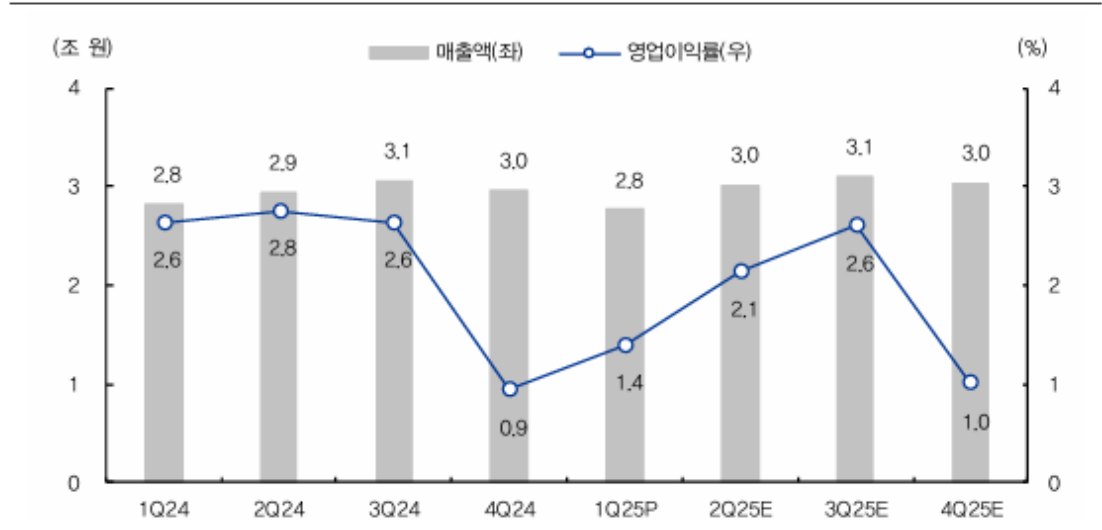
편의점 침체

1분기 실적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은 편의점 사업부 부진이다. 동사는 2025년에는 편의점 점포 수 순증을 지난해 대비 낮춘다고 언급한바 있는데, 이보다도 적은 점포 수 순증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한다. 생각보다 업황 부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연간으로 동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점 매출액 회복도 요연한 만큼 편의점 사업부의 실적 기여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1분기 편의점 기존점 성장률은 +0.9%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경쟁사대비 보수적인 출점 전략으로 출점 효과가 크지 않았고, 지난해 출점한 신규점 이익 기여도가 낮았던 부분이 실적 성장을 제한 시킨 요인으로 판단한다. 동사는 올해 연간 점포 순증 목표를 250~300개(기존 500~600개)로 조정하였는데, 이마저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편의점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구조적 성장기가 마무리된 것은 사실이기에 차별적인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단위:십억원,배)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11,134	11,627	11,910	12,109	12,280
영업이익	292	239	167	241	257
세전이익	61	11	101	212	237
지배주주순이익	18	3	77	156	174
EPS(원)	169	25	918	1,861	2,080
증가율(%)	-56.3	-85.3	3,612.2	102.6	11.8
영업이익률(%)	2.6	2.1	1.4	2.0	2.1
순이익률(%)	0.2	0.1	0.6	1.3	1.5
ROE(%)	0.4	0.1	2.4	4.7	5.1
PER	136.5	666.9	15.3	7.6	6.8
PBR	0.6	0.4	0.4	0.4	0.3
EV/EBITDA	4.9	3.6	3.6	3.5	3.5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GS리테일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GS리테일, IBK투자증권

주: 2024년 12월 파르나스호텔 및 후레쉬미트 인적분할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월드투어보다 MD 매출이 높다고?

[출처] 하나증권 이기훈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상향

2개 분기 연속 큰 폭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반영해 실적 전망과 밸류에이션 모두 상향(2026년 기준 목표 P/E 25배)하여 목표주가를 88,000원(+21%)으로 상향한다. 큰 폭의 실적 서프라이즈 배경에는 과거 블랙

핑크가 월드투어를 돌 때 보다 오히려 더 많은 MD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YG가 음원과 콘서트를 통해 빅뱅/블랙핑크 등 보유 IP를 월드클래스로 만드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최근의 YG는 베이비몬스터(이하 베몬)를 기점으로 2차 판권에 있어 완전히 달라진 접근을 하고 있다. 일례로, 베몬의 투어 MD 라인업이 과거 대비 많을 뿐만 아니라 5/9일부터 5/23일까지 상해와 심천에서 팝업스토어도 진행 중이다. 연이은 실적 서프라이즈가 구조적 변화임을 확인한 만큼 실적 전망도 지속 상향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기에 실적 발표 후 급등한 현 주가에서도 지속적인 비중확대를 추천한다.

1Q Review: OP 95억원(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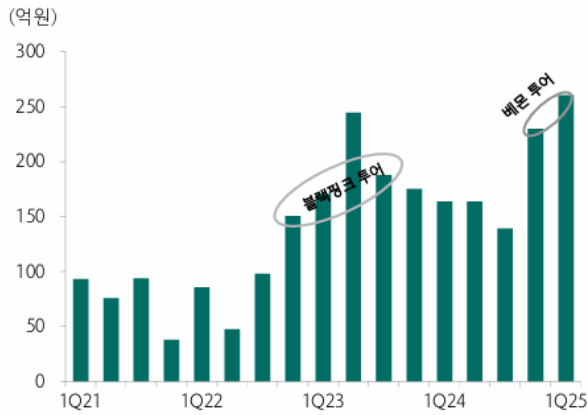
1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1,002억원(+15% YoY)/95억원(흑전)으로 컨센서스(4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자회사인 YG 플러스가 87억원(흑전)을 기록했는데, YG인베스트의 42억원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인 실적이었다. 트레저 컴백(약 80만장)과 2NE1, 베몬 등의 투어 약 26만명이 반영되었으며, 트레저 앨범 판매분 중 약 50억원이 YG플러스를 통해 유통되어 앨범이 아닌 MD로 반영되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MD 매출은 210억원으로 2개 분기 연속 2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제작비 절감 효과도 약 25억원 내외 반영되었다.

MD 매출에서 확인되는 달라진 YG

전술했듯이 작년 4분기부터 트레저/베몬/2NE1 등의 투어가 진행되면서 2개 분기 연속 MD 매출 200억원을 상회했다. 이는 상당히 놀라운데 과거 블랙핑크 월드투어 당시 1년간 약 180만명 관객 수를 기록하는 동안 MD 매출은 약 750억원이었다. MD 매출 분류에 투어 MD만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단순히 접근하면 인당 약 4만원의 MD 매출이며, 최근 2개 분기를 똑같이 적용하면 인당 MD 매출은 약 7.5만원으로 크게 상향되었다. 하반기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재개를 앞두고 있는데, 달라진 YG 버전이 계속 확인된다면 올해에만 100~150억원 가까운 이익 상향이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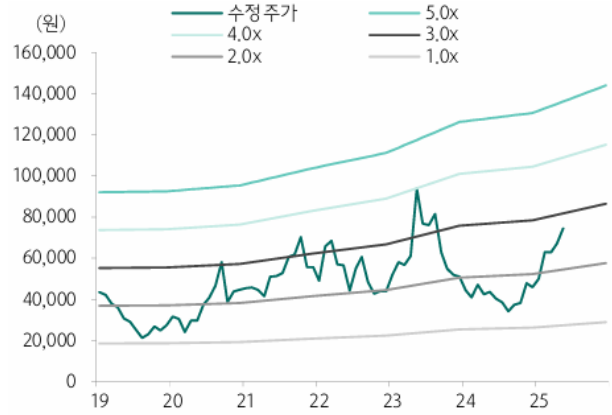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569.2	364.9	540.4	621.0	
영업이익	86.9	(20.6)	55.5	76.9	
세전이익	93.2	28.8	73.8	97.7	
순이익	61.3	18.5	47.3	65.6	
EPS	3,285	991	2,529	3,511	
증감율	81.19	(69.83)	155.20	38.83	
PER	15.49	46.22	29.42	21.19	
PBR	2.01	1.75	2.58	2.30	
EV/EBITDA	8.71	71.16	15.68	11.35	
ROE	14.00	3.90	9.30	11.59	
BPS	25,262	26,138	28,812	32,334	
DPS	300	250	300	300	

도표 4. YG MD 매출 추이 및 전망



자료: YG, 하나증권

도표 5. YG 12MF P/B 밴드 차트



자료: YG, 하나증권

도표 6. 베이비몬스터 상해 팝업스토어 일정



자료: YG, 하나증권

도표 7. 베이비몬스터 일본 팝업스토어 제품 라인업



자료: YG, 하나증권



